

한라반 학습 계획

일시 : 2020년 5월 2일

교사 : 김은아

목표 : 1. SAT 연습 문제를 풀 수 있다.

2. 읽기 연습을 할 수 있다.

3. 인간에 관한 한자를 익히고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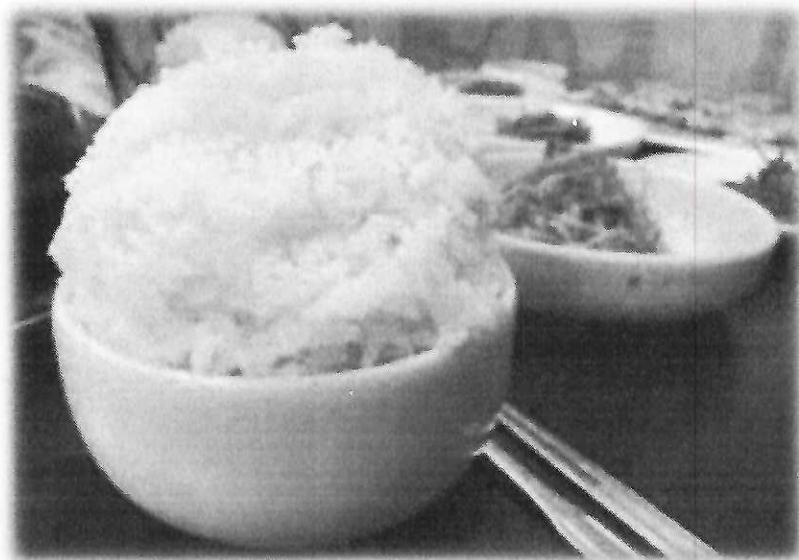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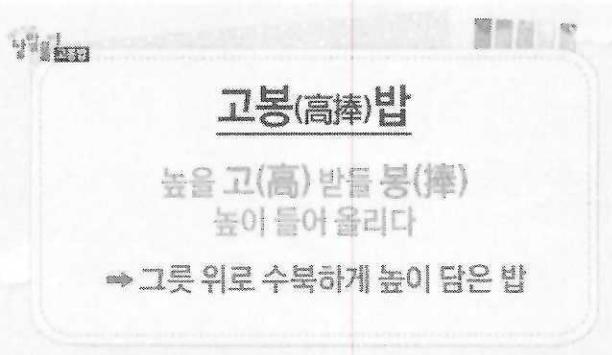
4. 관용어를 배우고 연습할 수 있다.

교재 : 살아있는 한국어 관용어, 외국인을 위한 재미 있는 한자 'Learn Hanja The Fun Way" 천재교육
스토리텔링 한국사, 서강 한국어3B, TOPIK만점에 도전하라, 중학교 생활국어 2-2(대교), 100대 민족문화
상징,

교시	수업내용
1교시 9:30-10:15	SAT 연습 문제 풀기 및 해설
2교시 10:15-11:00	읽기-”집밥”과 “혼밥” 사이
휴식	
3교시 11:20-12:00	관용어(가슴이 뜨끔하다, 간이 콩알만 해지다)
4교시 12:00-12:40	한자(인간)
알림 및 숙제	숙제는 Google Classroom에서 프린트하세요. 금요일 저녁 8시까지 제출(turn in)하세요 1. 관용어 2. 한자

‘집밥’과 ‘혼밥’ 사이

‘밥’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밥’이다. 예나 지금이나 ‘밥’이고 전국 방방곡곡 모든 지역에서 ‘밥’이다. 이렇듯 ‘밥’은 변함이 없으나 앞뒤에 붙는 말들은 변화가 있고, 그 변화는 각 시대의 우리의 삶을 간접적으로 말해 준다. 쌀이 귀하던 시절 ‘고봉밥’은 무척이나 반가운 말이었으나 밥이 과다한 탄수화물 공급원으로 전락해 버린 요즘에는 아예 사라진 말이 되었다. 과거에는 밥을 훔치는 사람, 혹은 일은 안 하고 밥만 촉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더 많이 쓰이던 ‘밥도둑’이 요즘에는 맛있는 반찬에 대한 찬사로 쓰인다. 그러나 ‘밥’과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가장 잘 반영해 주는 말은 역시 ‘집밥’과 ‘혼밥’이다.





다시 ‘집밥’과 ‘훈밥’으로 돌아오면…

‘집밥’이란 말은 ‘밥집’에서 나왔다. 뭔가 말이 되지 않는 것같이 들리지만 사실이다. ‘집밥’과 ‘밥집’은 참으로 묘한 관계다. 순서만 다를 뿐 ‘집’과 ‘밥’으로 구성된 단어이다. 그런데 집밥은 있으나 ‘집밥’이란 말은 없던 시절이 있었다. 집에서 밥을 먹는 것이 당연한 시절에는 ‘집밥’이란 말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다가 밥을 파는 집, 즉 밥집이 등장하게 되었다. 밥집에서 먹는 밥은 ‘밥집밥’이 되어야 하나 말이 이상하니 ‘밥집’의 다른 말인 ‘식당’을 써서 ‘식당밥’이라 부르게 된다. ‘식당밥’이 일반화되다 보니 드디어 그 반대말인 ‘집밥’이란 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밥집밥’, 아니 ‘식당밥’보다 더 자연스럽게 쓰이던 말이 있었으니 바로 ‘외식(外食)’이다. 말 그대로 보면 집 밖에서 먹는 밥이지만 실제로는 식당에서 먹는 밥을 뜻한다. ‘중국집’의 짜장면으로부터 ‘레스토랑’의 스테이크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먹든 모두에게 환영을 받는 말이 ‘외식’이다. 주부는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할 걱정에서 벗어나 좋고, 식구들은 매일 먹는 밥과 반찬이 아닌 색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 역시 좋다. 이 외식도 결국 식당에서 하는 것이니 이때 먹는 밥도 ‘식당밥’일 텐데 실제로는 그렇게 쓰지 않는다. 외식은 집밥이 먹기 싫어서 하는 것이고, 식당밥은 집밥을 먹을 수 없어서 먹는 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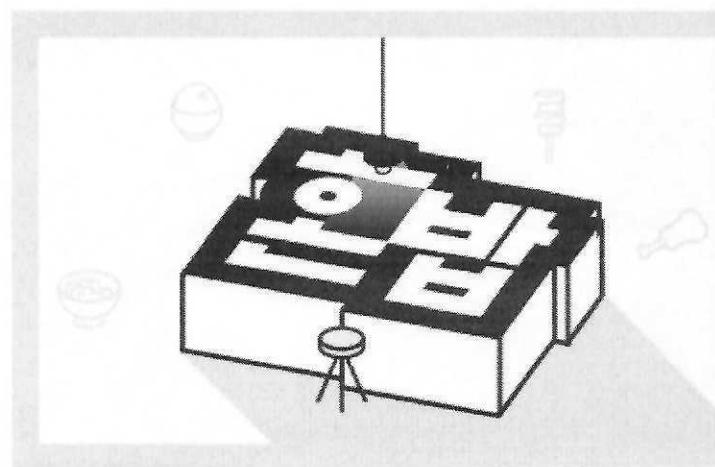
식당밥 ➡➡ 집밥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식당밥’의 반대말로 생긴 ‘집밥’은 단순히 집에서 먹는 밥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익숙해진 맛,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차림, 맛있는 반찬을 자꾸 몰아주는 손길, 배가 부른데도 자꾸 더 먹으라는 재촉 등이 어우러진 것이 집밥이다.

대학을 가든 직장을 찾아 집을 떠나 먹지 못하게 되면 그리워지는 그 ‘집밥’이다. 집밥만이 밥이던 시절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그리움이 물어나는 밥이니 집에서 먹는 밥으로서의 ‘집밥’만은 아닌 것이다.

‘집밥’이란 말이 널리 퍼져 나갈 무렵 새롭게 등장한 말이 ‘혼밥’이다. 이 말을 두고서는 누구든지 한마디씩은 하고 싶어 한다. 말을 너무 줄여 써서 알아듣기 어려워하는 이들은 줄임말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만이다. 좀 더

깊이 있게 보는 사람은 ‘혼자 먹는 밥’을 ‘혼밥’으로 줄이는 것은 우리말의 일반적인 조어법에는 맞지 않는다고도 말한다. ‘혼밥’에서 시작된 조어법이 ‘혼자 마시는 술’을 뜻하는 ‘혼술’과 ‘혼자 보는 영화’를 뜻하는 ‘혼영’까지 번져 나가자 우리말이 너무



오염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기도 한다. 그래도 조금 열린 자세로 우리말을 연구하는 이는 독특한 조어법이 점차 확산 되는 것을 흥미롭게 바라보기도 한다.

단어 자체만을 보면 조어법만이 보이지만 이 말을 삶과 관련지어 보면 짠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집밥이 당연해서 ‘집밥’이란 말이 없었던 시절에는 ‘식구(食口)’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말이다. 말 그대로 한집에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란 뜻이니 참 잘 만들어진 말이기도 하다. ‘식구’의 수가 줄어드는 상황, 식구는 있더라도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다 보니 ‘식구’의 본래 의미는 점점 퇴색해 간다.

‘훈밥’은 바로 이 ‘식구’가 줄어들고 그 의미가 퇴색해 가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말이다. 식구들과 같이 먹는 것이 익숙한 시절에는 ‘훈밥’이란 말은 있지도 않았고, 혼밥은 가능하면 피하려고 했다. 그러나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훈밥’이란 말은 서서히 그 세력을 넓혀 가게 된다. 어른들은 혼밥을 짠하게 바라보지만 막상 당사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집밥’이란 말은 ‘할 수만 있다면’이란 전제가 달리고, ‘훈밥’이란 말은 ‘할 수 없다면’이란 전제가 달린다. 정이 그리워서, 혹은 건강이 염려돼서 많은 사람들이 집밥을 먹으려 한다. 그래서 집밥은 여유로운 삶의 지표가 되기도 한다. 저녁이 있는 삶은 집밥과 맞닿아 있다. 아침을 거르지 않을 수 있는 여유 또한 쫓기지 않은 삶에서 나온다. 그러니 다들 할 수만 있다면 집밥을 먹으려 한다. 그러나 혼밥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넘어 능동적인 선택이기도 하다. 식구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을 찾기도 귀찮다. 때로는 그렇게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삶이 침해를 받는다는 느낌을 갖기도 한다. 그러느니 차라리 혼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겨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려는 사람들은 혼밥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인다.

조만간 다소 어색한 조어법이 쓰인 이 ‘훈밥’이란 단어도 국어사전에 표준어로 올라야 될지 모른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삶이, 그리고 그 삶의 주인인 우리들이 결정한다. ‘훈밥’이 우리의 삶을 자연스럽게 드러내 주는 말이 된다면 사전의 한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아직은 ‘식구’들과 먹는 ‘집밥’이 더 행복하게 느껴진다.

고급과정 작문 : 기억에 남는 집밥, 혼밥, 식당밥(외식)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자신의 경험을 살려 글을 써보세요.

이름 :

주제 :

대화

언니와 같이 있는
동안 가시 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이란도
언니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그래요?

- 지영: 정말 아슬아슬한 주말을 보냈어요. 어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리요.
- 아사코: 놀이 공원에 갔다 왔어요?
- 지영: 아니에요. 며칠 전에 언니가 무척 아끼는 코트를 몰래 입고 나갔다가 옷에 커피를 쏟아서 얼룩이 생겨 벼렸어요.
- 아사코: 저런, 언니가 화가 많이 났겠는데요.
- 지영: 언니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몰래 옷장에 걸어 두었거든요.
- 아사코: 들킬 게 뻔한데 어떻게 하려고요? 지영 씨는 정말 간이 크네요.
- 지영: 그렇지 않아도 어제 언니랑 장을 보러 가는데 언니가 그 코트를 입고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 아사코: 지영 씨 정말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들켰어요?
- 지영: 들키지는 않았는데 장 보는 동안 가시 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언니가 좋아하는 피자를 사 들고 가서 솔직하게 말하려고 해요.

* 가시 방석에 앉다: 마음이 힘들고 불편한 상황에 있다

활용예문

- ▶ 사장님과 출장을 다니는 동안 가시 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 ▶ 그 친구를 볼 때마다 가시 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친구에게 큰 잘못을 했거든요.
- ▶ 가: 지난주에 숙제를 안 냈나면서요?
나: 네, 그래서 수업 내내 가시 방석에 앉아 있는 기분이었어요.

새 어휘와 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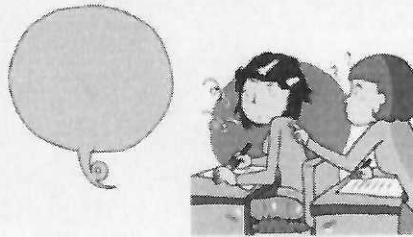
- | | | | |
|---------------------------------|--------------------------------|--------------------------------------|-------------------------------|
| <input type="checkbox"/> 아슬아슬하다 | <input type="checkbox"/> 두근거리다 | <input type="checkbox"/> 쏟다 | <input type="checkbox"/> 얼룩 |
| <input type="checkbox"/> 들키다 | <input type="checkbox"/> 가시 | <input type="checkbox"/> 방석 | <input type="checkbox"/> 불안하다 |
| | | <input type="checkbox"/> 장(을) 보다 | |
| | | <input type="checkbox"/> -(으)ㄹ 게 뻔하다 | |

험계승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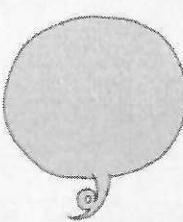
가시 방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시험을 보는데 정답을 가르쳐
달라는 친구 때문에 힘들어하
는 '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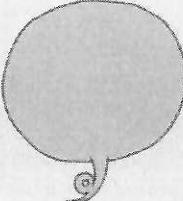


3번 문제
정답이 뭐야?
좀 가르쳐 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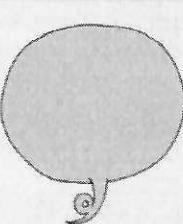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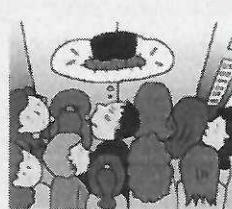
너무 배가 고파서 친구의 빵
을 몰래 먹은 '민수'



대학입학시험에서 벌써 두 번
이나 떨어진 '삼수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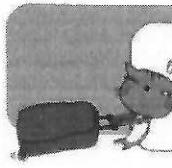


많은 여자들이 있는 엘리베
이터 안에 혼자 있는 '남자'



한 걸음 더

- ▶ 바늘방석에 앉다(=) 힘들게 일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다.
- ▶ 가시밭길을 가다(=) 아주 어렵고 힘들게 살다
가시밭길을 가는 것처럼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 ▶ 돈방석에 앉다(=)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다
옆집 아저씨가 복권에 당첨되어서 돈방석에 앉았대요.


대화

김 선생님께서 입에
침이 마르게 너를 칭찬
하셨어. 네가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열심히
한다고 말이야.



정말?
김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

에 릭: 민수야. 오랜만이야. 잘 지내고 있지?

민 수: 그저 그래. 방학이라서 매일 빈둥빈둥 놀아. 넌 어떻게 지내?

에 릭: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오전에는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오후
에는 사물놀이 동아리에서 팽과리 치는 걸 배우고 있어.

민 수: 그런데 너 한국이 실력이 많이 늘었어. 정말 열심히 공부했구나.

에 릭: 아니야. 지금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민 수: 발음도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고 어양도 한국 사람처럼 자연스러워졌어.

에 릭: 하하하. 비행기 태우지 마.

민 수: 아니야, 김 선생님도 입에 침이 마르게 너를 칭찬하셨어. 모든 일에 적
극적이고 열심히 한다고 얼마나 칭찬하시던지.

에 릭: 정말? 참. 근데 너 무슨 일로 전화했니?

민 수: 응? 영어 숙제가 있는데 네가 좀 도와줬으면 해서.

* 입에 침이 마르다: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여러 번 말하다

활용예문

- ▶ 친구들이 내가 만든 김치찌개가 맛있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했어요.
- ▶ 선생님께서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한 사람이 누굴까요?
- ▶ 가: 민지가 노래자랑에서 상품으로 전자 사전을 받았더라고요?
나: 네, 저한테 입에 침이 마르게 자랑을 했어요.

새 어휘와 문형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빈둥빈둥 | <input type="checkbox"/> 사물놀이 | <input type="checkbox"/> 동아리 | <input type="checkbox"/> 팽과리 | <input type="checkbox"/> 늘다 | <input type="checkbox"/> 억양 | <input type="checkbox"/> 자연스럽다 |
| <input type="checkbox"/> 마르다 | <input type="checkbox"/> 적극적 | <input type="checkbox"/> 노래자랑 | <input type="checkbox"/> 상품 | <input type="checkbox"/> 자랑하다 | <input type="checkbox"/> 얼마나 -던지 | |

함께해요



다음 글을 읽고 친구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을 정도로 칭찬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에 우리는 오늘 하루 또는 일주일, 한 달, 일 년 그 이상의 긴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칭찬 한 마디 해 보는 게 어때요?



여러분의 친구를 소개하고 그 친구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 보세요.

내 친구는 _____입니다.



여러분이 들은 칭찬 중에서 기분 좋았던 칭찬의 말을 써 보세요.

• 웃는 얼굴이 예뻐요.

- _____
- _____

한 걸음 더

▶ 입이 떨어지지 않다(^^)

말을 하기가 어렵다

나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니까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 입이 심심하다(^^)

무엇을 먹고 싶다

입이 심심한데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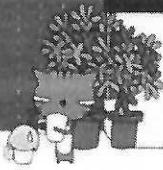
▶ 마르다(^^)

• 목이 마를 때 마시는 물 한 잔은 정말 꿀맛이에요.

• 날씨가 좋아서 아침에 널어 놓은 빨래가 다 말랐어요.

• 마른 몸매에 긴 생머리의 여학생을 보고 첫 눈에 반했다.

43_ 가시 방석에 앉다 44_ 입에 침이 마르다



연습해요



보기의 관용어를 넣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보기

가시 방석에 앉다 가시밭길을 가다 입에 침이 마르다 입이 떨어지지 않다

1 가: 민우에게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나: 아니요. 민우 얼굴만 보면 부끄러워서 _____.

2 가: 편하고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_____ 는 준석 씨를 이해할 수 없어요.

나: 저도 그래요. 하지만 준석 씨에게는 그게 더 행복한 일일 거예요.

3 가: 추석 때 고향에는 잘 다녀왔어요?

나: 취직도 못 했는데 친척들이 어느 회사에 다니느냐고 물어서 _____ 는 것 같았어요.

4 가: 사람들이 왜 준기를 _____ 게 칭찬해요?

나: 준기는 예의도 바르고 모든 일을 열심히 하니까.

5 가: 아직도 몸이 불편할 텐데 왜 별씨 출근했어요?

나: 모두 바쁘게 일하는데 저 혼자 쉬려고 하니까 _____ 는 것 같아서요.

6 가: 정호는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발 벗고 나서서 도와준대요.

나: 아, 그래서 사람들이 정호를 _____ 게 칭찬하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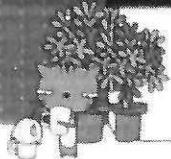


여러분이 대화문을 만들어 보세요.

가: _____

나: _____

43_ 가시 방석에 앉다 44_ 입에 침이 마르다



이야기해요

가시 방석에 앉다 / 입에 침이 마르다



다음 글을 읽고 상황에 맞는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어제 민지네 집에서 할아버지의 제사가 있었다. 민지는 제사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어머니를 도와 설거지를 했는데 그것을 본 친척들은 민지에게 친하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했다. 그러자 어머니도

친척들에게 민지가 집안일을 자주 도와준다고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평소에 집안일을 전혀 돋지 않는 민지는 친척들과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가시 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어머니께 너무 죄송스러워서 어머니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그날 이후부터 민지는 어머니를 자주 도와드리기로 마음먹었다.

민지: 어제가 할아버지 제사라서 떡하고 과일을 좀 싸 왔어. 같이 먹자.

제빈: 와, 맛있겠다. 그렇지 않아도 입이 침침했는데. 어머니께서 음식을 준비하시는라고 고생이 많으셨겠네. 너도 힘들었지?

민지: 아니야. 설거지 하는 것만 잠깐 도와드렸는데 친척들이 내가 친하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셨어.

제빈: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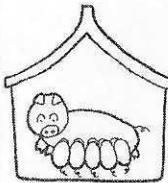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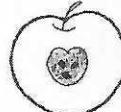
민지: _____

제빈: _____

민지: _____

제10과 가족 (家族, Family)

① 기본 한자 (Basic Chinese Characters)

家 가	<p>집 : house, family, person A long time ago, all houses (宀) used to raise pigs (豕). e.g.) 가족 family, 가구 furniture, 국가 nation, 화가 painter</p> <p>宀 (집 면)부 + 7획 = 총 10획</p> <p>宀 室 家 家 家</p>	
族 족	<p>가족 : family, clan, tribe A person (人) with an arrow (矢) at their side (方) is one of the clan. e.g.) 민족 race, 가족 family, 종족 tribe</p> <p>方 (모 방)부 + 7획 = 총 11획</p> <p>ノ 方 方 族 族 族</p>	
父 부	<p>아버지 : father A father is holding a stick (乚) in his hand (丂) indicating a stern figure. e.g.) 부모 parents, 신부 Catholic priest</p> <p>父 (아버지 부)부 + 0획 = 총 4획</p> <p>ノ 亼 父 父</p>	
母 모	<p>어머니 : mother A pictograph of a woman with two dots indicating the darker nipples of a woman's breasts after becoming a mother. e.g.) 모친 mother, 모교 alma mater, 계모 step-mother</p> <p>母 (어머니 모)부 + 0획 = 총 5획</p> <p>ノ 月 月 母 母</p>	
核 핵	<p>핵심 : nuclear, core, nucleus Tree (木) and hard casing (亥, 헤, sound part). A hard casing is found on the kernel of some fruits. This means also nucleus and in modern times nuclear. e.g.) 핵무기 nuclear weapons, 핵가족 nuclear family, 핵심 the point</p> <p>木 (나무 목)부 + 6획 = 총 10획</p> <p>木 木 核 核</p>	

兄

형

형 : older brother

The person (儿) who leads with words (口), especially in the absence of the father, is the 'older brother'.

e.g.) 형 older brother, 형제 brothers/sisters



儿 (어진 사람 인)부+3획=총5획 丨 ロ 口 兄

弟

제

동생 : younger brother

Another stick (弓) and leather (韋, “弓” is simplification). The pictograph of winding a leather rope around a stick to keep it in order. The lowest in the order is the 'younger brother'.

e.g.) 제자 pupil, 형제 brothers/sisters



弓 (활 궁)부+4획=총7획 丨 ロ ノ ヌ 弟

夫

부

남편, 사내 : husband, man

A pictograph of an adult male with ornamentation (top-knot) on his head. This means a married man, therefore the meaning is 'husband'.

e.g.) 부부 husband and wife, 농부 farmer, 공부 study



大 (큰 대)부+1획=총4획 丨 二 手 夫

婦

부

부인 : wife, daughter-in-law

The woman (女) is lifting (a variant of 手) the towel (巾) or broom for cleaning the house (乚). She is a married woman or 'wife'.

e.g.) 부인 married woman, 주부 housewife, 신부 bride, 부부 husband and wife



女 (여자 女)부+8획=총11획 丨 女 女 女 婦 婦 婦 婦

祖

(祖) 조

할아버지, 조상 : grandfather, ancestor

Show/god (示) and a pictograph of a plate full of food (且, 차, sound part) Many grandfathers have passed away and they became our ancestors. While filling a plate with our grandfather's favorite food, we remember him.

e.g.) 조상 ancestor, 조부모 grandparents, 조국 fatherland



示 (보일 시)부+5획=총10획 丨 千 示 祖 祖 祖 祖

孫

손

손자, 손씨 : grandson, surname Son

A son/child (子) and to link with small thread (系, 계).

Your grandchild continues the family, linking the present generation with future generations like a great invisible thread.

e.g.) 손자 grandson, 손녀 grand daughter, 자손 descendants



子 (아들 자)부+7획=총10획 丨 子 子 孙 孙 孙 孙 孙

2 단어 (Words)

家族	a family
父母	parents
祖父母	grandparents
兄님	an elder brother
兄弟	brothers (and sisters)
同生	siblings
男同生	a younger brother
女同生	a younger sister
孫子	a grandson
孫女	a granddaughter
大家族	a large family
核家族	a nuclear family
夫婦	husband and wife, a married couple
中心으로	with priority given to, centered around

3 독해 (Reading Comprehension) 한자를 읽고 번역하세요.

우리 家族은 모두 四名입니다. 父母님과 우리 兄弟가 있습니다. 제가 兄이고, 男同生이 한 名 있습니다. 女同生이 없어서 가끔 섭섭합니다. 韓國도 옛날에는 祖父母님과 같이 사는 大家族이 많았지만, 요즘은 核家族이 많습니다. 核家族은 보통 夫婦 中心으로 사는 편입니다. 우리 父母님은 올해 六十세이십니다. 저는 二十三세이고, 同生은 二十세인데, 아직 大學生입니다. 저는 一年 동안 英語를 배우러 美國에 가려고 합니다. 男同生은 日本語를 배우러 東京에 갈 계획입니다.

④ 연습 (Practice)

1. 다음 한자의 음과 뜻을 써 보세요.

- | | |
|-----|-----|
| ① 家 | ② 族 |
| ③ 父 | ④ 母 |
| ⑤ 核 | ⑥ 兄 |
| ⑦ 弟 | ⑧ 夫 |
| ⑨ 婦 | ⑩ 同 |
| ⑪ 孫 | ⑫ 祖 |

2. 다음 단어의 음과 뜻을 써 보세요.

- | | |
|---------|-------|
| ① 家族 | ② 父母님 |
| ③ 兄弟 | ④ 兄弟 |
| ⑤ 同生 | ⑥ 男女 |
| ⑦ 大家族 | ⑧ 夫婦 |
| ⑨ 孫子/孫女 | ⑩ 祖父母 |

3. 다음 ()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한자를 써 보세요.

- ① 夫婦와 子女로만 이루어진 家族을 () 家族이라고 합니다.
②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